

인간 이순신 장군의 매력에 퐁당 빠지다

안성민

“엄마, 태민이가 제 일기 훑쳐보려고 해요.”

밤마다 우리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다. 동생이 자꾸 내 일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난 숨기느라 정신이 없다. 사실 남의 일기를 훑쳐보는 것만큼 재밌는 일은 찾기 힘들다. 난 그렇게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한 줄 한 줄 난중일기를 읽어 내려갔다.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적을 물리쳤고, 100원짜리 동전에도 새겨져 있을 정도로 위대하고 훌륭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수많은 승전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영웅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이순신 장군이 느껴져서 왠지 친근하게 다가왔다.

난중일기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다. 아마도 이순신 장군의 성실함과 세심함이 아닐까 싶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약 7년 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썼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난 일주일에 3번 쓰는 것도 힘들어서 맨날 꾸물거리며 엄마한테 혼나는데 말이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기록한다는 것 역시 대단한 침착성이 요구된다. 이순신 장군은 강철 심장을 지녔나 보다. 이순신 장군은 일상적으로 공무를 본 것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장군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써 놓았으며 긴박하고 참혹한 전쟁 상황을 자세하게 써서 내가 직접 전투를 본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 전쟁 부분을 읽을 때는 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났으니 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임진왜란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자료로 널리 인정되나 보다. 또한 평소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전쟁을 대비하고 곤장으로 군대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카리스마란 말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리더십이 빛났다. 이러한 엄격함과는 별도로 자상하고 애뜻한 면도 드러났다. 늘 멀리 있는 가족을 걱정했고 어머니를 지극히 생각하는 효심도 엿볼 수 있었다. 부하의 죽음을 접하고는 크게 슬퍼하였으며 고생하는 병사들을 위해서는 잔치도 열어주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엄격함과 자애로움, 또한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기록할 정도의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매력 덩어리였던 것이다.

난중일기를 읽기 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신화 속 주인공 같아서 왠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순신 장군도 과로로 코피를 쏟고, 자신을 모함한 원군에 대해서는 “흉인”이라고 칭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보니 킁킁 웃음이 났다. 이순신 장군도 우리 같은 인간이었던 것이다.

세계 역사상 선봉장으로서 지휘를 하면서 일기를 쓰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다고 한다. 난중일기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다니 너무 기뻐 절로 노래가 나온다. 이제야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존경 받고 사랑받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